

대학생들의 성행동 및 피임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허명행¹⁾ · 안혜영²⁾ · 곽은아³⁾ · 김경미³⁾ · 박지영³⁾ · 이제일라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부터 서구사회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 사회로 변모하고, 다양한 매스컴의 발달로 대중매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의 범람 속에서 성 행동의 양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결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성욕을 발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성욕의 표출에서 남녀간의 차이도 줄어들고 성폭력, AIDS 감염의 증가, 미혼모 및 혼전 낙태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욕구가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 심리적,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사회적 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Chang & Lee, 2003; Lee, 1999).

입시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성교제가 자유스러워지는 대학생 연령층은 성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점차 대학생들 사이에서 성 활동 빈도가 증가하고 있거나 피임 목적이나 성적 감염 예방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대처는 저조한 실정이다(Kang & Chang, 2004).

특히 오늘날 성 관련 사회현상은 과거와는 다르게 서구문명의 도입과 다양한 매스컴의 발달로 인한 대중매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의 범람속에서 성에 대한 행동 기준을 갖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욕

구가 식욕이나 수면욕 등의 생존적 욕구와는 다르게 생리적, 심리적, 관계적인 사회적 욕구가 통합된 욕구로서의 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며, 청년기의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g & Lee, 2003). 따라서 대학생들은 키스, 성교 등의 혼전 성행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성지식은 낮고 성관계 경험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성 관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임에 관한 지식과 피임법의 이용은 성교시 성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Von, Kovar와 Armbruster(2006)은 대학생 55명을 면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1/3의 응답자들은 미국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패의 원인은 금욕시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반응하면서, 이상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피임에 대하여 “접주는 교육”이 아닌 “사실적이고(nitty-gritty), 편안한” 것이기를 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피임은 자신이나 상대자의 임신, 출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며,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 지식과 그것의 이용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2001).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연구(Kim, 2001)에 따르면 성적 자율성이 피임에 대한 태도나 지각된 행위통제나 피임행위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임에 대한 지식이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지되지 못 할 만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경구 피임약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경구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Yim & Cho,

주요어 : 성행동, 피임, 대학생

1)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2)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 저자) 3)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투고일: 2006년 2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1월 31일

2002)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 피임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행동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를 고찰하고 이를 근간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피임 지식의 정도와 피임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성행동 양상을 파악한다.
-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피임 태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피임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 개인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은 배제한 채, 성과 관련된 요인들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가 우리 문화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성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본 자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고 피임 지식의 정도와 피임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남녀 대학생 중 편의표출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참여를 수락한 대학생은 총 417명(남학생 220명, 여학생 197명)이었다.

측정 도구

조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질문 구성 내용은 일반적 사항, 성행동, 피임지식, 피임태도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일반적 특성

이 질문지는 20문항으로 일반적 사항, 성지식의 습득원 및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성행동

본 도구는 Kang(2002)의 연구와 Jung(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행동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이성교제, 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나 허리 감싸기, 포옹/키스, 애무, 성교 경험, 임신 경험, 피임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다.

● 피임지식

본 도구는 Yim과 Cho(2002)의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간호학 교수 3인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작성되었으며, 피임의 종류 및 효과,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상자에게 문항의 진술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맞을 경우 1점, 틀릴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피임태도

본 도구는 Kang과 Chang(2003)의 연구에서 개발된 피임태도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피임행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인 각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2점~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과 Chang(2004)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2$ 이었다.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의 회의를 거쳐 자료 수집 방법과 장소, 조사원 선정 방법 등을 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담당할 연구보조원들은 각 대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학생 8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교육 후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서관, 식당, 강의실, 교내 캠퍼스, 휴게실 등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학교는 편의 표출한 10개 대학으로 각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그 중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대학생들에게 작성요령을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되는 대로 회수하여 총 41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남학생 209명, 여학생 191명으로 총 400명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WINSPSS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 성행동, 피임지식, 피임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에 따른 피임지식, 피임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피임지식과 피임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학년, 계열, 병역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209(52.3%), 여학생이 191명(47.8%)이었고, 연령은 평균 21.73세였다. 또한 종교는 없는 경우가 187명(46.8%)이었고, 학년은 2학년이 114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 3학년, 4학년 순이었다. 전공 영역은 자연-공학 계열이 143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열, 의료보건계열, 예체능계열, 신학계열 순이었다. 또한 전체 남학생중 군필자가 145명(69.4%)으로 미필자보다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

대상자는 성지식 자각 정도에 있어서 보통 수준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97명(74.3%)으로 가장 많았고, 성지식 습득원은 친구나 포레로부터 얻는 경우가 318명(79.5%), 습득경로는 대중매체(라디오 및 텔레비전)가 14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성지식 습득원에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애인 등이 있었고, 성지식 습득경로에는 대화, 직접, 경험 등이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09(52.3)
	Female	191(47.8)
Religion	None	187(46.8)
	Buddhism	62(15.5)
	Christianity	113(28.3)
	Catholicism	36(9.0)
	Etc.	2(0.5)
Grade	Freshman	105(26.3)
	Sophomore	114(28.5)
	Junior	100(25.0)
	Senior	81(20.3)
Department	Humanity and sociology	130(32.6)
	Science and engineering	143(35.8)
	Art and Sporting	27(6.8)
	Medical and health	80(20.0)
	Theology	4(1.0)
	Etc.	16(4.1)
Military service	Incompletion/Exemption	64(30.6)
	Completion	145(69.4)

대상자들의 성태도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110명(27.5%), 개방적인 경우가 57명(14.3%)으로 나타났고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33명(58.3%)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350명(87.5%)이 유경험자였고, 이들이 현행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지루한 내용이 303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 교재부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물음에 6개월에 1번 정도가 125명(31.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은 피임이 244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 성기 위생 및 성 건강, 태도 및 가치관, 이성 교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토론식 129명(32.3%)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2>.

성행동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 299명(74.8%) 중 100%가 손잡기를 하였으며, 팔짱끼기, 어깨나 허리 감싸기, 포옹/키스, 애무, 성교 순으로 나타났다. 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나 허리 감싸기, 포옹/키스는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80% 이상이 경험하였으며, 성교는 127명(42.5%)이 경험하였다. 이 결과를 전체 대상자로 비교하였을 경우 전체 대상자 400명 중 키스 경험은 264명(66%)으로 나타났고, 성교 경험은 127명(32%)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교경험이 있는 127명 중 대학교 1~2학년에 최초로 성교를 경험하는 경우가 58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Table 2>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wareness of sexual knowledge	High	71(17.8)
	Middle	297(74.3)
	Low	3.2(8.0)
Who give you the sexual knowledge	Teacher	28(7.0)
	Parent	5(1.3)
	Brothers and sisters	2(0.5)
	Friend	318(79.5)
	Sexual expert	5(1.3)
	Senior	5(1.3)
	Etc.	37(9.3)
How to acquire the sexual knowledge	Mass media	147(36.8)
	Print media	61(15.3)
	Lewdness video and movie	22(5.5)
	Sexual knowledge contents	53(13.3)
	Internet, telephone	84(21.0)
	Etc.	33(8.4)
Sexual attitude	Conservative	110(27.5)
	Neutral	233(58.3)
	Openness	57(14.3)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Yes	350(87.5)
	No	50(12.5)
Problem of present sexual education (multiple response)	Unsatisfactory contents	163(17.5)
	Lacking knowledge of teacher	80(8.6)
	Superficial tedious contents	303(32.6)
	Contents that are out of demands	286(30.8)
	Shortage of time	83(8.9)
	Etc.	14(1.5)
Frequency of hoping sexual education	Once a month	59(14.8)
	Once three months	79(19.8)
	Once six months	125(31.3)
	Once twelve months	99(24.8)
	Unwanted education	31(7.8)
	Etc.	6(1.5)
Contents of hoping sexual education (multiple response)	Physical psychological change	118(8.1)
	Sexual fancy and urge	72(5.0)
	Practice masturbation	48(3.3)
	Genitalia sanitation and sexual health	171(11.8)
	The other sex intercourse	129(8.9)
	Method of kissing and petting	69(4.8)
	Intercourse	86(5.9)
	Pregnancy	190(13.1)
	Contraception	244(16.8)
	Unusual sexual behavior	64(4.4)
	Attitude, values	163(11.2)
	Sexual role	96(6.6)
Method of hoping sexual education	Lecture	26(6.5)
	Discussion	129(32.3)
	Audio-visual education	124(31.0)
	Pamphlet education	2(0.5)
	Case presentation	111(27.8)
	Etc.	8(2.1)

가 뒤를 이었다. 처음 성교한 상대자로는 이성교제 상대가

100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아는 사이(친구), 일회성 미팅 상대, 매춘업 종사자 순이었다. 성교를 하게 된 계기는 ‘서로 합의하에’라는 응답이 전체의 67명(52.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에 취해서’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와 몇 번 정도 만난 후 성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6~30회가 41명(32.3%)로 가장 많았고 성교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본인 또는 상대의 집에서 성교를 하는 경우가 72명(56.7%), 숙박업소가 40명(31.5%)으로 두 장소에서 주로 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경험은 성교경험이 있는 127명 중 피임경험이 있는 사람은 113명(89.0%)으로 대부분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는 피임방법은 콘돔이 74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질외사정 31명(24.4%), 피임약, 월경주기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경험이 있는 대상자 127명 중 13명(11.6%)이 성 상대자 혹은 본인이 임신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임신 후의 해결방법은 “인공유산(낙태) 시켰다.”경우가 가장 많았고, “낳아서 입양 시켰다.”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이나 낙태를 결정할 때 의논 상대로는 성교상대자가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후배, 부모, 형제·자매나 친척 순으로 성교상대자와 가장 많이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xperiences about sexual behavior (N=299)

Type	N(%)
Clasp hands	299(100.0)
Lock arms with flame	290(97.0)
Wrapping waist or shoulder	277(92.6)
Hug/kiss	264(88.3)
Petting	142(47.5)
Sexual intercourse	127(42.5)
Total	1399(467.9)

(multiple response)

피임 지식

‘예’, ‘아니다’로 구성된 20문항의 피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 결과 평균 15.33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임점수는 최저 5점부터 최고 20점까지 분포를 보였으며 15점부터 18점까지가 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정답을 차지한 문항은 ‘콘돔은 남자의 음경에 씌워 정자가 질 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질문으로 정답율 96%(384/400)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정답율을 보인 문항은 ‘배란 시기에는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난관절제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난관을 절제하

<Table 4> Frequency of correct answer about knowledge of contraception (N=400)

Item	N (%)
1. The child-bearing period is for two days during the menstrual cycle.	292(73%)
2. You should take an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within 72 hours after sexual intercourse.	240(60%)
3. Vaginal discharges increase during the ovulatory phase.	348(87%)
4. You wear on a condom before erection.	332(83%)
5. A sperm lives for only one day in the intrauterus.	276(69%)
6. Contraception can prevent all pregnancy.	348(87%)
7. Salpingectomy is an operation that excises the oviduct not to allow a sperm to meet an ovum.	292(73%)
8. You should use a spermicide within 6 hours after sexual intercourse.	188(47%)
9. A condom is a method that prevents a sperm from entering the vagina by wearing it on the penis of the man.	384(96%)
10.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pregnancy if you have coitus antepartus.	332(83%)
11. You don't need to prevent conception just after you got your seminal duct excised.	296(74%)
12. An oral pill prevents an ovum from ovulating in the ovary.	300(75%)
13. You don't get pregnant during the breast-feeding period.	260(65%)
14. When you use a condom, you should deflate the front.	312(78%)
15. Body temperature increases a bit during an ovulatory phase.	348(87%)
16. You don't get pregnant if you take a douche after sexual intercourse.	348(87%)
17. The ovulation day is 14 days before the starting date of menstruation of the following month.	332(83%)
18. After you have a vasectomy, your sexual capacity decreases.	344(86%)
19. You should take an oral pill regularly.	288(72%)
20. Among contraceptions, there is a method that checks body temperature.	288(72%)

는 수술이다’, ‘배란 시기에는 체온이 약간 상승한다.’ ‘성교 후 질 세척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라는 질문으로 정답을 87%(348/400명)를 보였다. 반면, ‘살정제는 성교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한다.’라는 질문은 전체 응답자 400명 중 188명(47%)이 정답을 맞추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4>.

피임태도

대학생들의 피임 태도는 피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 40.98이며 최저 12점부터 최고 60점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최저 12점은 3명으로 0.8%였고 최고 60점은 10명으로 2.5%였다. 점수대별로 살펴보면 41~50점대가 161명으로 40.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31~40점대가 그 다음으로 115명(28.8%)이었다. 그리고 12~20점대가 15명으로 3.8%를 보여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Table 5>.

<Table 5> Contraception attitude (N=400)

Score of contraception attitude	N(%)
12~20	15(3.8)
21~30	45(11.2)
31~40	115(28.8)
41~50	161(40.2)
51~60	64(16.0)
Total	400(100.0)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에 따른 피임 지식 및 피임 태도

피임지식의 평균은 남학생이 15.31 ± 2.637 , 여학생이 15.36 ± 2.308 로 성별, 학년별 피임 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전공 계열간의 피임 지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기타, 예체능 계열, 신학 계열, 자연-공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보건의료 계열 순으로 전공 계열별 학생들의 피임 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7.119$, $P = .000$). 또한, 전공 계열간의 피임 지식의 차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예체능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과 보건 의료계열보다 피임 지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성교 경험 유무에 따른 피임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교 유경험자의 피임지식은 평균 15.81, 성교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 15.11점이었으며, 성교 유경험자의 피임지식 점수가 유의하게($t = 2.673$, $P = .008$) 높았다.

그리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지식의 정도와 실제로 측정된 피임 지식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71명)의 평균은 16점/20점이었고, ‘보통 수준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297명)의 평균은 15.38점/20점, ‘낮은 편이다.’이라고 생각한 응답자(32명)의 평균은 13.41점이었다. 또한, 세 그룹간의 사후 검정한 결과,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한 그룹이 ‘보통 수준이다’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한 그룹보다 피임 지식 수준이 유의하게($F = 12.993$, $P = .000$) 낮았다.

대상자들의 피임 태도는 남학생이 평균 39.98점 여학생이 평균 42.07점으로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의 피임태도에는 유의한 차이($t = -2.076$, $P = .03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학년별, 전공-계열별 대학생들의 피임 태도에는 유

<Table 6>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of sexual and sexual knowledge (N=4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of contraception		Attitude of contraception	
		M ± SD	F or t (P)	M ± SD	F or t (P)
Sex	Male	15.31 ± 2.637	-1.181 (.857)	39.98 ± 8.840	-2.076 (.039)
	Female	15.36 ± 2.308		42.07 ± 11.071	
Grade	Freshman	14.88 ± 2.433	1.485 (.206)	39.91 ± 9.533	1.768 (.135)
	Sophomore	15.36 ± 2.611		42.64 ± 8.274	
	Junior	15.50 ± 2.351		40.18 ± 11.946	
	Senior	15.68 ± 2.479		40.99 ± 10.101	
Department	Humanity and sociology	14.95 ± 2.450a)	7.119 (.000)	41.69 ± 9.995	1.261 (.280)
	Science and engineering	15.14 ± 2.443		40.45 ± 9.733	
	Art and Sports	16.19 ± 2.165b)		39.99 ± 10.699	
	Medical and health	14.19 ± 2.949a)		42.70 ± 10.167	
	Theology	15.75 ± 1.708		33.25 ± 9.743	
	Etc.	17.59 ± 1.417		43.71 ± 8.267	
Sexual intercourse	Yes	15.81 ± 2.433	2.673 (.008)	40.52 ± 8.461	-.683 (.495)
	No	15.11 ± 2.478		41.19 ± 10.669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교 경험에 따른 피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교 유경험자의 피임태도는 평균 40.52점, 성교 무경험자의 피임태도는 평균 41.19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대학생들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들의 피임 태도는 평균 42.03점, 피임 지식은 평균 15.34점으로 나타났으며, 피임지식과 피임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r=.063$, $p=.209$)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피임지식과 피임 태도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N=400)

	Attitude of contraceptio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ttitude of contraception	1	
Knowledge of contraception	.063 (.209)	1

논 의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고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성에 관련된 특성을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성지식의 습득원은 친구나 또래, 습득경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Moon(1997)의 연구에서는 친

구, 책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친구로부터 지식을 얻고, 과거에 비해 다양한 매스컴의 발달로 대중매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의 습득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성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친구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된다.

Von 등(2006)은 미국 초기 성인기의 성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피임에 대하여 “겉을 주는 교육”이 아닌 “알아야 할 것들은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에서 성교육 프로그램 실패의 원인은 금욕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반응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행 성교육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지루하고 피상적인 내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현행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망하는 성교육 방법은 토론식, 내용은 피임과 임신을 가장 선호했다. 이는 일방적인 전달식 방법보다는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행 성교육이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 대학생 모두 본인들이 성교육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과 교육 내용은 무조건적 금욕을 강조하고, 임신을 피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인식되기 보다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행동을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 400명 중 키스 경험은 66%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교 경험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Moon(1997)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392명 중 키스 경험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교 경험은 14.4%인 것으로 보아 이는 1997년에 비해 성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Kang(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424명 중 키스 경험은 40.4%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교 경험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개방된 성문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행동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002)의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이 있는 46명 중 피임경험이 있는 사람이 6.1%로 피임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성교경험이 있는 127명 중 피임경험이 있는 사람은 89.0%로 대부분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순간의 호기심으로 행해지는 성교이므로 피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피임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콘돔이 58.3%로 제일 많았고 질외사정 24.4%이 그 다음이었는데, 질외사정은 정확한 피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임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욕을 강조하고, 피임방법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John 등(2007)에 따르면, 청소년 임신율에 감소에 일차적 결정 요인은 역시 피임방법의 실천이었고, 이것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와 같은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지식에 관한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피임 지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피임지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Yim과 Cho(2002)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고, Moon(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지식 점수가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 피임지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 남성들이 접하는 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피임지식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교 유무에 따른 피임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성교 경험이 있을수록 피임 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경험을 통해 이전의 성교육에서는 알지 못하는 지식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피임에 대한 지식은 성교육만으로 얻는 지식보다 자신이 필

요로 할 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열에 따른 피임지식은 보건 의료 계열과 타 계열간의 피임지식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생들이 성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부와 생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고 실제적인 피임법을 배우지 않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항별 피임지식의 정도를 고찰한 결과, 가장 많은 정답을 차지한 문항은 ‘콘돔은 남성의 음경에 씌워 정자가 질 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는 질문이었으나 ‘콘돔 사용 시 앞부분의 공기를 빼고 사용한다.’, ‘콘돔은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인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살정제는 성교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한다.’ 순으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성교 전, 후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전체적으로 피임법에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성교육에서 성교 전, 후 대책, 정확한 피임 방법 등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피임태도에 관한 본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피임태도는 Yim과 Cho(2002)의 논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으며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Yim과 Cho(2002)의 연구에서는 피임법 중 경구 피임약에 대한 태도만을 측정한 것으로, 이는 여성에게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여성의 태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임태도 점수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임태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왔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임신에 대해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임신은 남성, 여성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남성의 피임 태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보인다.

위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피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을수록 피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견해와는 다르게 피임에 대한 지식은 피임을 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피임지식 정도와 상관없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피임 태도는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지식 전달에만 치중하는 요즘의 성교육보다는 실제 피임을 하고자 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점점 성 행동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대학생의 성 행동의 양상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성 행동의 범 위나 빈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피임 지식과 피임 태도를 일반적 특성이나 성 관련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 피임지식과 피임태도 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 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의 성행동은 이전의 연구 결 과보다 다양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성행동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실제적 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피임에 대한 지식은 전공 계 열에 따라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그룹이 있었고, 성교경 험이 있는 그룹에서 피임지식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피임지식과 피임태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성경험이 다양해지고 개방적 으로 변함에 따라 성 접근성이 높아지는 학생들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단 순히 지식이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은 깊이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 들이 육체적으로 성인에 도달했고, 피임에 대한 지식도 증가 했지만, 자신들의 성행동 및 임신과 피임에 대한 태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성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올바른 성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 피상적이고 지루한 지식교육이 아닌 대학생들을 위한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체계적이며 다양한 성교육 교재 및 도구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 대학생들의 피임지식을 축적하는 프로그램과 태도를 변화시 킬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 접근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ng, S. B., & Lee, M. K. (2003). A study on sexual autonomy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3), 339-346.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in sex.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318-330.
- John, S. S., Laura, D. L., Lawrence, B. F., Susheela, S. (2007). Explaining recent declines in adolescent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ribution of abstinence and improved contraceptive Use. *Am J Public Health*, 97(1), 150-156.
- Jung, H. J. (2001). *A study on consciousness and behavior in sex of unmarried per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ang, H. S., & Chang, S. B. (2004). Development of sexual attitude measurement on condom use amo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4(5), 751-759.
- Kang, H. S. (2002). *A study on sex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point of views about sex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M. J. (2001). *An explanatory model on behavior of contraception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B. (1999) Korean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office. *The sexuality lecture*. Seoul: Dongnyok.
- Moon, I. O. (199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4(2), 95-113.
- Von, S. V., Kovar, C. K., Brown, C., & Armbruster, M. (2006). The need for sexual health information: perceptions and desires of young adults. *Am J Matern Child Nurs*, 31(6), 373-80.
- Yim, H. J. (2002). A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ttitude on oral pill of Korean &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8(4), 471-481.
- Yim, H. J., & Cho, Y. H. (2002). A study on knowledge & attitude on oral pill in university students of partial region. *Korean J Health Nurs*, 16(2), 1-17.
- Yun, G. H. (1998). *Sexuality culture and psychology*. Seoul: Hakjisa.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Hur, Myung Haeng¹⁾ · Ahn, Hye Young¹⁾ · Kwak, Eun Ah²⁾
Kim, Kyung Mi²⁾ · Park, Ji Young²⁾ · Lee, Jea Ill Ra²⁾

1)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2)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sexual behavior and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0 university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14 to 20, 2005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 The percent of subjects that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was 32%. The respondents' score of knowledge of contraception was a mean score of 15.33 on a scale of 20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departments,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exual intercourse and sexual knowledge. The respondents' score of attitude of contraception was a mean score of 40.98 on a scale of 60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Conclusion:** A sex education program that uses practical knowledge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to prevent conception should be developed rather than the present sex education that only attaches schoolbook knowledge.

Key words : Sexual behavior, Contraception, Universiti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Ahn, Hye Young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143-5 Yongdoo-dong, Jung-gu, Daejeon city 301-832, Korea

Tel: 82-42-259-1715 CP: 82-16-463-6558 Fax: 82-42-259-1709 E-mail: ahanaya@eulji.ac.kr